

충청지방 혼례복식 연구

A Research of Traditional Wedding Costumes In ChungCheong Province

정 복 희

충청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Jung Bok-Hee

ChungCheong university

* 이 연구는 2008년도 충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머리말

2. 혼례의 변천과 의식절차

- 2-1. 혼례의 변천
- 2-2. 혼례의 의식절차

3. 혼례복식의 종류와 형태

- 3-1. 신랑복식
- 3-2. 신부복식

4. 혼례복식의 사진자료

5. 마무리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충청지역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전통혼례의 혼례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형태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충청도지역의 박물관, 향토민속자료관 등에 소장된 유물 그리고 개인소장자를 방문하여 면담조사 하였다.

조사 자료는 조선 말기부터 1960년대에 걸쳐 사용되어온 민간혼례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과정에서, 혼례복 관련 문헌에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혼례복이란 혼례 시 입는 걸옷을 일컫으며, 계절과 무관하고, 여자에게 있어 혼례복은 초혼복을 말한다라는 점이다. 충청지방의 혼례복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용과 일가·친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문에서 마련해 두고 사용하는 집안공용 혼례복이 있었다. 혼례복의 특징은 첫째, 맞춤옷이 아니고 기성복이며, 일반 옷보다 치수가 크고 넉넉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키나 몸집에 관계없이 크거나 적어도 그냥 입었다. 둘째, 신랑 옷은 서민의 경우, 빈부에 관계없이 입었고, 신부의 경우는 빈부에 따라 옷과 장신구가 달랐다.

혼례복의 그 형태적 유형은 크게 신랑복식과 신부복식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의복과 장신구로 나눌 수 있다. 신랑복식의 의복은 사모 관복 목화가 있으며, 장신구로는 각대가 있다. 신부복식의 의복은 화관, 족두리, 활옷, 원삼,

꽃신이 있고, 장신구로 비녀, 땡기, 대대가 있다. 충청지방 혼례복식의 형태는 왕실 혼례복에 준하여 유사하거나 덜 화려하였다. 이는 혼례 자체가 규범이고 혼례복은 국정혼례복으로서 전국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충청지방은 서울 경기의 영향권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특이점은 혼례복 속에 입는 모시 적삼이 '시원하게 시집살이가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일률적이나, 이는 혼례 일의 긴장과 낯선 환경에서 예상되는 체온 상승에 따른 대처방안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주제어

전통혼례, 혼례복식, 충청지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idea of aiming at succeeding to and developing our own national tradition by classifying systematically the traditional wedding clothes dressed in ChungCheong province, and finding out their characteristics.

There are two kinds of wedding dress; one is used for family and the other is for villagers in ChungCheong provi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dding dress is a ready-made one whose size is larger and baggier than the ordinary one. The dress bridegroom's dress is to be worn regardless of their status, and bride's dress and ornaments according to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process of study, the fact that traditional wedding had been standardized was found. As wedding costumes are nationally-designated one, and are in the same category across the nation, it is meaningless in itself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pattern in a certain province.

It can be said that a lot of existing theses have made mistakes owing to the absence of exact concept on it

* Wedding dress is considered as outer clothing wedded at wedding ceremony.

* Wedding dress is unrelated to season.

* For women, wedding dress regarded as the one used for the first marriage.

1. Classification of wedding costumes was indicated in mark.

2. Since wedding ceremony is standardized, it has a unilateral form nationwide.

Thus, the difference depending on provinces means the change within the form of standardization. 'Wedding dress in a district' should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wedding tradition.

3. Wearing the unlined summer jacket made of ramie fabric has been generally thought to be helping women to have a comfortable life in the parents-in-law's house without much difficulty. However, it seems more likely to be thought of as the means to lower the high temperature caused by stress and anxiety while spending long hours at the wedding, and as the revelation of mother's deep consideration of her daughter as well.

Key word

traditional wedding, traditional costume, Chungcheong province

1. 머리말

혼례복식(婚禮服飾)은 혼례의 복식, 즉 혼례에서 입는 옷과 장신구를 말한다. 혼례는 남녀가 부부가 되는 혼인의 규범적인 의식으로 일명 '근례(醮禮)' '빙례(聘禮)' '취례(娶禮)' '혼의(婚儀)' '가취지례(嫁娶之禮)' 등 그 이름도 다양하다.

이 혼례는 우리나라의 옛날 통과례(rites of passage)인 사례(四禮), 즉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경사로운 길례(吉禮)라 하여 흔히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한다.

그리고 혼례복식에서 혼례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평상복과 차이는 특수한 의례복으로 겉옷을 말하며 장신구도 몸치장을 하는데 쓰이는 물건이지만 의례복에 따르는 특수한 장식품이다. 의례는 형식적 행위이지만 그 형식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형화되고 또 사회적 관습으로 실행되면서 문화적 전통(cultural tradition)으로 전승된다. 그런 까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간접적으로, 광복 후에 직접적으로 서양문화가 전래되고 또 수용하면서 서양식 혼례가 '신식결혼식'이란 이름으로 일반화되자 상대적으로 재래의 혼례를 '구식결혼식'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오늘날 구식결혼식이란 말 대신에 '전통 혼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

은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관습적으로 행하여 온 전통 혼례와 혼례에서 착용하는 복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형태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충청도지역의 박물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등에 소장된 유물 그리고 개인소장자를 방문하여 면담조사 하였다.

2. 혼례의 변천과 절차

2.1. 혼례의 변천

혼인(婚姻)의 장가든다는 혼(婚)과 시집간다는 인(姻)의 합성어이다. 그리고 혼은 옛날에 남자가 저녁 때(昏)에 여자(女)를 만나 예식을 올렸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고 인은 여자가 중매로 인(因)하여 신랑감을 구하여 시집을 간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김중혁,2002)

고대의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혼이 있었다. 언어, 음식, 주택, 의복, 예절 등이 고구려와 비슷하였던 동옥저의 풍습을 전한 기록에 의하면, 처녀가 열살이 되면 혼약을 맺고 사위집에서 이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키워서 성인이 된 다음에 여자 집에 보내는데 여자 집에서는 일정한 재물을 받고 시집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이 풍습은 주로 가난한 가정에서 딸을 시집보내는 혼인형태였다(김중혁, 2002). 최남선의 婚姻古俗¹⁾(최남선, 1948)에 따르면, 濊傳에는 < 同姓不婚>, 辰韓傳에는 < 嫁娶以禮>가 있었다.

고구려에는 중매혼과 자유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가 부모의 허락도 얻지 않은 채 자유혼을 하여 낳았다고 하였고, 그와 동시에 중매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었다는 데서 그 당시 일반적인 혼인 풍은 중매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혼인 풍습으로 데릴사위제²⁾를 들 수 있

1)삼국지의 고구려전(高句麗傳)에 『其俗作婚姻,言語已定,女家作小屋於大屋後,名婿屋,婿暮之女家戶外,自名跪拜,乞得就女宿,如是者再三,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傍頓錢帛,至生子已長大,乃將婦歸家』하느니라 하고 삼국지의 東沃沮傳에는 魏略을 인용하여가르대 『其嫁娶之法,女年十歲,已相設許,婿家迎之,長養以爲婦,至成人更還女家,女家責錢,錢畢乃復還家』하느니라 하고 濊傳에는 < 同姓不婚> 이라하고 辰韓傳에는 < 嫁娶以禮>라고 한 것 등은 대개 서기 3세기 경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시찰하고 간 이의 所見을 記한것

2) 혼인을 약속하면 신부의 집에서 큰집 뒤에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지었다. 약속한 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신랑감이 신부의 집 문 앞에 와서 자기의 이름을 대고 뚫어 앉아 신부와 함께 자겠다고 청한다. 신부의 부모는 처음에 대답을

다. 예서제(預壻制)라 부르는 이 제도는 옥저의 민며느리제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민며느리제는 신부가 신랑의 집에서 사는 반면 데릴사위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일해 주며 처가살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아 장성하면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간다.

백제의 혼인 풍습은 의자왕의 삼천궁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부다처제의 풍습이 있었고, 『삼국사기』에 도미의 처에 관한 설화에서 여인들이 정절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혼인절차와 의식에 대한 기록은 많지는 않으나 중국의 역사책인 『북사』 『수서』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북사』 신라전에는 혼인을 치를 때는 오직 술과 음식만 마련하는데 이것을 잘 마련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생활의 빈부에 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신라시대에는 왕실 내에서 근친혼을 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라 초기 박씨왕실시대에 7대 왕인 일성이사금의 부인이 박씨였다는 기록과 8대 왕인 아달라이사금의 부인은 사촌 간 이었던 6대왕인 지마이사금의 딸로 오촌의 조카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종혁, 2002)

고려에는 일부다처 혼이 공인되었고, 이는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 장려, 시행되었다. 『고려사』 열전에 나타나는 다처병축 기사, 『고려도경』에 묘사된 부가들의 풍속, 고려 말의 다처 풍조를 지적한 조선 초기의 기사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국시의 제일을 '事大慕夏'로 한 조선에 와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금지되게 되었다(장병인, 1997).

조선에서는 여말 이래의 다처풍조를 척결하여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였다. 즉, 처첩제는 그대로 용인되 정치는 1인밖에 두지 못하게 하였으며, 부녀의 개가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그 규제를 강화하였다. 부녀의 개가에 대한 규제는 한 여자를 종신토록 한 남자에게만 얹매이도록 하였고, 남자의 중혼에 대한 규제는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자와 혼인관계를 갖는 것만을 금지한, '從一夫'에 역점을 둔 '일부적일부일처제'의 성격(장병인, 1997)을 지닌 혼인이었다.

2.2 혼례의 절차

혼례의 절차는 일찍이 중국의 『예기(禮記)』에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육례)'로 정하였으나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여 주자(朱子)가 『가례(家禮)』

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두세번 간청하면 마지못해서 승낙하고 마련한 집에서 자게 한다. 이때 신랑은 돈과 비단을 폐백으로 내 놓는다.

에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四禮)'로 축소하면서 혼례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여기서 의혼을 제외하고는 각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뒤따르는데, 협의의 혼례의식은 친영에 있어서의 초례(醮禮)를 말하며, 이 때 혼례복의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혼례복이란 초례청에서 신랑, 신부가 입는 옷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혼례도 육례에서 사례로 변하고 특히 조선 숙종 때 이재(李穡)가 『주자가례』를 참조하여 편찬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민간의 혼례절차에 크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또는 가문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의 혼속이 중국에서 전래한 혼례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혼례절차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혼(議婚): 혼인상대를 구하여 혼인을 합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남자는 열다섯 살 이상, 여자는 열두 살 이상이면 의혼할 수 있었다.

(2) 납채(納采) : 양가에서 혼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랑 집에서 신랑의 사주와 의양(衣樣: 옷의 치수)을 적어 신부 집에 보내는 일을 이른다.

(3) 납폐(納幣) : 혼인날이 정해진 후, 신랑 집에서 혼서(婚書)와 혼수(婚需)를 담은 함을 신부집에 보내는 일을 말한다. 혼서는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혼인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일부종사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자가 일생동안 보관했고, 죽은 뒤에 관에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혼수는 대개 청홍의 비단 치마 저고리 한 벌씩이었는데, 청색 비단은 붉은 종이에 싸서 청색 명주실로 맷고 홍색 비단은 청색 종이에 싸서 홍색실로 묶었다. 함에는 이 밖에 씨가 있는 목화송이와 팔을 넣은 주머니를 넣어 자손 번창을 기원했다. 함은 전날 밤에 함진아버가 등불을 앞세우고 가져왔고, 신부 집에서는 대청에 자리를 깔고 떡 한 시루를 준비해 놓고 함을 받았다(허동화, 1998).

(4)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 집에서 초례(醮禮)를 올린 뒤 신방을 치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도 어른들이 맺었던 집안끼리의 계약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특히 남녀의 내외가 심하여 중매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두 집안이 사주단자(四柱單子)·연길(涓吉) 등을 주고받으면,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예식을 치르는 중국·일본의 혼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랑이 처갓집에 장가가서 혼례를 올렸다. 초례는 집사의

홀기(笏記)에 의해 진행되었다

홀기의 순서는 신랑이 목기러기를 신부집에 바치는 전안례(奠雁禮), 신부와 맞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 술 한 모금씩을 세 번 나누어 먹는 합근례(合卺禮)로 진행하고 의식이 끝나면 처갓집에서 2~3일 묵었다가 시집에 오나, 1년쯤 지난 후에 오는 일도 있었다. 새색시는 시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친척들에게 폐백을 올리고 시집살이를 시작한다(은양박물관, 1999).

혼례복은 친영(親迎) 때 입는 옷이다. 그런데 남자는 초혼은 물론, 재혼·삼혼에서도 혼례를 할 수 있으나 여자는 원칙적으로 초혼 때만 혼례를 치루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 혼례복은 초혼예복(初婚禮服)을 의미한다.

3. 혼례복식의 종류와 형태

옛날의 혼례복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왕실혼례복과 민간혼례복으로 크게 나누어지나 본고에서는 충청지역에 현존하는 민간혼례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혼례복의 그 형태적 유형분류를 하면 크게 신랑복식과 신부복식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의복과 장신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구분		신랑복식	신부복식
의복	모자	사모	화관, 족두리
	옷	관복	원삼 활옷
	신	목화	꽃신
장신구	머리		비녀, 땡기
	옷	각대	대대
	신		

[표1] 혼례복의 유형분류

3.1. 신랑복식

신랑복식의 종류는 의복으로 사모 관복 목화로 분류되고 장신구로 각대가 있다.

머리에 쓰는 모자를 사모라 하고, 관대(冠帶)란 관복(官服)과 의대(衣帶)의 복합어이며, 관디의 본디말이다. 관복(官服)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착용하던 상복(常服)이며, 의대는 허리에 두르던 띠를 말한다. 신랑(新郎)의 경우는, 사모(紗帽)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고 품대(品帶)를 띠며 흑화(黑靴)를 신는다. 이것은 관복(官服)에서 상복(常服)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미 벼슬을 얻은 사람이 결혼할 때는 품계(品階)에

따라 의색(衣色)·흉배(胸背문반; 단학흉배, 무반; 단호흉배)·혁대에 구별이 있다. 이러한 옷차림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반인계급(班人階級)에서는 물론, 형편이 허용되는 중인(中人) 이하의 계급에서도 혼인은 인륜대사(人倫大事)라 하여 착용이 특별히 허락되었다. 혼례 끝난 후에는 관디벗김(관디벗금) 하였다. 이는 신랑이 초례를 마치고 관디를 벗을 때에 갈아입도록 신부집에서 마련한 옷을 말하며, 길복벗김 이라고도 한다. 목화는 목이 길고 넓은 신발이다. 이제 그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모(紗帽)

사모는 외올 실로 짠 모자의 이름이나 검정실로 짜는 것이 일반이라 ‘오사모(烏紗帽)’라 하였다. 이 사모는 본래 관원들이 일상 관복에 갖추어 쓰는 모자인데, 서민들도 혼례 때만 이 사모를 관복에 갖추어 특별히 썼다.

사모의 형태는 모체(帽體)의 전면(前面)이 2층으로 둥그렇게 턱이 쳐 있고 뒤는 뾰족하며, 뒤 중심에서 양옆으로 날개모양이 달려 있다. 날개는 처음에는 연각(軟角)이었다가 점차 경각(硬角)으로 변화하였다. 1387년(고려 우왕 13) 5월, 사신 설장수(榑長壽)가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 명 태조의 하사품으로 처음 착용한 데에서 비롯하며, 다음 달인 6월부터 1~9품 관인들의 관모로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8년(태종 18년) 1월부터 백관이 사용하였으며, 26년(세종 8년) 2월에 상복(常服)의 부속 관(冠)으로 제정된 후 1900년(광무 4년) 문관복이 양복으로 바뀔 때까지 조선들의 공식복장에 가장 널리 오랫동안 착용되었다.

조선 후기의 사모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2층으로 모체를 턱이 지게 만들고, 흑칠을 한 후 위에 가는 비단실로 짠 흑사포(黑紗布)를 발랐다.

경각의 날개는 앞쪽으로 약간 굽어 있는 형상인데, 대나무나 철사로 윤곽을 잡고 공간은 무문(無紋) 또는 유문(有紋)의 흑사포로 채웠다.(동아,1992) 사진 1의 좌측 사모는 아산(牙山)의 이득선(1865~1948) 소장품인데, 죽사(竹絲)로 엮고 종이로써 모형을 잡은 다음 흑포(黑布)를 씌워 발랐다. 익각(翼角)은 홀이고 모부(帽部)가 낮고 익각이 둥글고 앞쪽으로 휘어진 형태이다(계몽문화재단,1988).

그러나 혼례에서 신랑이 쓰는 사모는 일반적으로 모체가 낮고 양각의 길이가 길지 않고 앞으로 굽은 흑사모이며 충청북도 음성(音聲)의 향토민속관에 있는 사

모도 위와 같은 형이다(사진1, 우측).

충청지역에서 영동과 보은, 괴산, 옥천의 향토사료관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향토사료관, 대전 선비박물관, 온양박물관에 전시된 사모의 형태는 모두 다 이와 유사하였다. 옥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이수암 관장에 의하면 사모의 날개는 남성의 고향을 상징한다고 한다(고서에서 읽었으나 원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 남자의 경우 재혼시 사모의 빨을 한 개만 꽂는데, 혼례식 때 장모가 마저 채워 준다고 하였다

(2) 관복(官服)

관복은 원래 관원들의 의복을 뜻하는 것으로, 문무백관의 공복(公服)과 상복인 단령을 지칭한다. 단령은 목둘레를 둥글게 만든 포로서 홉옷에 중단을 받쳐 입던 것이 점차 겹옷이 되었다. 따라서 안감 깃은 중단 깃과 같이 직령이며, 소매는 좁은 소매에서 크게 넓어졌다가 국말에는 다시 좁아졌다. 깃의 옆선은 허리부터 밑단까지 터져 있었으나 점점 무가 넓어져 중기 이후에 뒤로 접어 넘기게 되었다. 앞은 오른쪽으로 깊게 여며지며 둥근 깃의 끝은 매듭단추로 어깨에 고정시킨 후 고름을 매며 각대를 띤다. 그런데 관복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같은 시대라 해도 벼슬과 품계에 따라 크게 달라 그에 맞는 흉배(胸背)를 달았다. 흉배는 착용자의 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수문(鳥獸紋)의 수를 놓아 단령의 가슴과 등에 붙이는 것이다.

단령에는 흉배를 다는데 흉배는 착용자의 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수문(鳥獸紋)의 수를 놓아 단령의 가슴과 등에 붙이는 것이다. 혼례복으로는 남색 관복을 입고 각대를 띠고 집안 벼슬과 품계에 따라 흉배를 달았다.

그러나 혼례에서 신랑이 입는 관복은 신랑예복으로 바지, 저고리 위에 입는 단령(團領)이다. 옷색은 남색, 북청색 등 청색계통과 자색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흉배는 당상관과 같이 쌍학흉배를 달았다. 그리고 단령 속에는 청색의 도포를 입었다(유희경, 1999). 음성 향토자료전시관의 관복(사진2,우측)과 청원군 한얼고미술 소장의 관복은 모두 남색 옷에 쌍학의 흉배가 달려있고, 영동과 옥천의 향토민속관에 전시된 관복도 같은 형태였다.

(3) 각대(角帶)

각대는 본래 조신(朝臣)들이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띠를 지칭하는 말로 일명 관대(官帶)라고 하고 직품을 표시하여 품대(品帶)로 별칭 되기도 한다. 벼

슬아치들이 공복에 두르던 각대는 신라 때 이미 제도화 되어, 처음에는 포대(布帶)를 만들어 쓰다가 나대(羅帶)를 거쳐 혁대(革帶)로 변천하고,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금대·은대·동대 그리고 옥대 등이 등장되었다. 고려에는 제도화되어 대체로 3·4품의 근사이상은 금대, 5·6품의 조관은 검은 가죽으로 만든 각띠를 들렀다.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발달되어, 비취옥을 붙여 만든 임금의 비취대(翡翠帶), 옥을 붙여 만든 태자용의 옥대(玉帶), 무소의 뿔로 만든 1품관이 쓰는 서각대(犀角帶), 정2품용의 삼금대(鍍金帶), 가장자리는 황금, 가운데는 붉은 장식물을 붙인 종2품용의 소금대(素金帶; 鶴頂帶), 정삼품용의 삼은대(鍍銀帶), 종3품·4품용의 소은대(素銀帶), 종5·6품용의 흑각대(黑角帶), 정7품~종9품용의 오각대(烏角帶) 등이 있었고, 국상 때 띠는 포품대(布品帶) 등 여러 종류의 각대가 있었다(동아, 1992).

그러나 혼례에서 신랑이 착용하는 각대는 신랑복식의 관복에만 사용하였는데 그 각대는 일품과 같은 서대(犀帶)를 띠었다(사진4). 서대는 무소의 뿔로 장식한 띠로 옥대(玉帶) 다음으로 귀한 것이었다(김영숙, 1998).

(4) 목화(木靴)

목화는 본래 문무백관이 의식이나 대궐에 출입할 때 단령, 사모, 각띠와 함께 착용하던 신이다. 그 형태는, 바닥의 창(昌) 위에는 앞, 뒤 각각 돋우개가 있고, 발을 싸는혜(鞋)부분과 발목을 감싸는 말(襪)부분 사이에는 붉은 색 휘(揮)를 들렀으며, 말 윗부분에 금(衿)이 있고 윗변(邊)에는 도리(回伊)를 들렀다(석주선,2004).신의 목이 길고 굵은 흑색 우단이며 안은 흰 융을 대었고 밑창은 가죽인데 솔기에는 붉은 선을 두른 것이다(유희경,1991). 그 형태나 장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혼례에서 신랑이 신는 목화는 신랑의 복식으로 사모관대차림에 신을 수 있었다(온양민속, 1991). 음성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있는 목화(사진3, 좌측)는 금(衿)부분 없이 말(襪)이 길고 붉은색 도리(回伊)를 두른 것이 특징이다.

3.2. 신부복식

신부복식의 종류는 의복으로 화관, 족두리, 활옷, 원삼, 꽃신이 있고 장신구로 비녀, 멩기, 대대가 있다. 활옷이나 원삼 소매 끝에는 손을 가리기 위하여 댄 천인 흰색 한삼(汗衫)이 달려 있다. 길이는 일정하지 않고 흰색비단을 사용한다. 조선 중기이후 신

부의 혼례복은 활옷(闊衫)과 원삼(圓衫)이며 머리에는 칠보로 장식한 화관(花冠)이나 족두리를 쓰고 발에는 꽃을 수놓거나 무늬가 있는 꽃신을 신거나 아니면 당혜나 운혜를 신었다. 특히 활옷은 공주와 영주의 대례복으로 서민의 혼례 때 사용이 허용되었으므로, 남자의 단령과 더불어 계급의 상향성을 느낄 수 있어 많이 착용하였다(조효순, 1996)고 한다. 혼례 당일 머리는 어머머리에 홍색 사(紗)에 금박을 넣은 앞대기를 양쪽으로 늘이고 머리 뒤에는 도투락대기를 늘였다. 예복 속에는, 속치마로 무릎까지 닿는 두루치 위에 무지기를 입고, 밑단에 금박을 한 홍색 스란치마나 대란치마와 자주색 회장을 단 삼회장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혼례복 밑에 모시 속적삼이나 배속곳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덤기 때문이다.³⁾ 김순예 할머니⁴⁾에 의하면 1944년 7월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랑은 남색 단령을 입고 사모관대에 목화를 신었다. 신부는 연두저고리에 붉은색치마를 입고 연두색 원삼을 입었으며 족두리를 쓰고 흰 바탕에 빨간 꽃 파란 꽃이 그려져 있는 고무신을 신었다고 했다. 저고리 속에는 시원하라고 모시 속적삼을 입었다고 했다. 겨울에도 모시 속적삼을 입게 한 것은, 왕골자리를 깔아주었는데도 온돌이라 구들이 뜨거워 더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혼례식 날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낯선 공간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육체적 불안과 긴장에서 오는 체온 상승에 따른 적응을 위한 대처방안의 한 방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며, 여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라고 사료된다. 이제 그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관(花冠)

화관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의식이나 경사가 있을 때 반가에서는 혼례시나 경사 시에 대례복 또는 소례복을 입고 머리에 착용한 수식물이다. 화관은 금, 은, 흑, 비취, 진주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꾸몄다(유희경, 1999). 화관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 문무왕 때부터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활옷과 같이 국속화 되었고 그 형태가 작아지게 되었다. 족두리와 병행되어오다가 정조 때 가체의 사치로 말미암아 발제개혁과 더불어 족두리와 화관의 착용을 권장하게 되자 서민들도 혼례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예관용으로 사용할 때는 나비를 달고 오색 구슬로 화려하게 꽃 모양을 둘러 달

기도 하고 칠보로 꾸몄다. 조선말에 와서는 정장할 때는 족두리를 쓰고 화려하게 꾸밀 때는 화관을 사용하였는데, 대개 활옷이나 당의를 입을 때 썼다(김영숙, 1998). 아산 이득선 소장의 화관은 접두부(接頭部)를 육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바깥쪽으로 퍼진 형태이다(사진5). 위에는 전면에서 후면을 잇는, 천을 바른 종이판이 있다. 이곳에는 오색의 구슬을 꿰어 장식하고 떨나비를 붙였다. 위와 옆, 앞에는 흰색의 구슬을 꿰어 늘어 뜨렸다. 앞면에는 2마리의 학을 금색종이로 오려붙였다. 옆면 양쪽에 2개의 구멍이 있어 비녀를 좌우에서 각각 꽂도록 하였다(계몽, 1988).

(2) 족두리(族頭里)

족두리는 고려 후기부터 의식(儀式)때 예복에 갖추어 쓰던 관이다. 조선시대 특히 혼례 때 많이 사용하였는데, 서민층에서 靑紅裳에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도투락대기를 드리웠다. 족아(簇兒)·족관(簇冠)이라고도 한다.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 아래는 둥근 원통형이고 위는 분명하지 않게 6모가 져 있으며, 솜이 들어 있고 가운데를 비워서 머리 위에 얹는다. 쓴다기보다는 얹어놓고 비녀를 질러 고정한다. 최남선(崔南善)의 『고사통(故事通)』에 ‘의식용 복식은 몽골풍(蒙古風)을 가장 많이 가미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자의 예장에 쓰는 족두리는 몽골에서 사부녀(士夫女)가 외출할 때 쓰는 모자이고, 신부 복식으로 산호주 꾸러미의 도투락대기는 몽골 기혼녀의 두식(頭飾)으로 쓰는 도톨이라 하는 것이며...’라 하여 족두리가 몽골풍의 것임을 말해준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동국부녀수식변증설(東國婦女首飾辯證說)>에서 보면, ‘고려사(高麗史)에 원(元)에서 왕비에게 고고리(古古里)를 사(賜)하니, 즉 관명(冠名)으로 세상에 전하는 지금의 족두리(簇頭里)는 고고리의 음에 가까워 와전된 것이 아닌가 보며, 칠보로 된 화관(花冠)·운관(雲冠)의 제(制)가 있다’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족두리는 고려 후기 이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와 홍봉한(洪鳳漢) 등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 보면, ‘조극선(趙克善)이 말하기를 족두리는 광해군(光海君) 중년부터 모두 현금(玄錦)으로 거죽을 하고 자주(紫)로 안을 하였으며, 속은 비었고(少論) 가문에서 사용했다함) 머리 위에 올려 썼는데 한때 좋아하여 국속(國俗)으로 변했다’ 하였으니, 광해군 때에 이미 사용한 것이 영조(英祖)·정조(正祖) 때에 가체(加髻)를 금지하고 족두리 사용을 장려하면서

3) 김영진 전 청주대학교 교수의 증언

4)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거주. 현 84세

더욱 널리 퍼졌다.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장려한 족두리에도 화관과 같이 지나치게 많은 패물을 장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동아, 1991). 일반적인 형태는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 아래는 둥글고 위에는 여섯 폭을 이어 둥글게 꿰매고 안에 솜을 넣어 만든다. 곁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위, 중앙, 옆면에 칠보, 밀화, 옥 등을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김영숙, 1998). 아산 이득선 소장의 족두리(사진6, 좌측)는 검은 비단으로 곁을 싸고 안에는 솜을 도톰하게 넣었으며 옆으로는 금박으로 꽃무늬와 수복강녕(壽福康寧)의 문자를 넣었다. 정수리에는 옥판(玉板)위에 구슬을 꿰어 달았다. 이러한 족두리는 老論 가문에서 쓰던 족두리라 한다. (계몽, 1998).

음성향토자료전시관의 족두리(사진6, 우측)도 형태가 같으며 구슬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3) 활옷

활옷은 조선왕조 때 공주·옹주의 대례복으로 입던 소매가 넓은 옷으로 활의라고도 한다. 가례(嘉禮) 때 주로 상류 계급에서 착용한 예복이나, 나중에는 서민도 혼례 때에 한해서 착용이 허용되었다.

구조는 무가 없이 옆이 트이고 앞자락이 둘, 뒷자락이 하나로 모두 세 자락이며 앞자락이 짧고 뒷자락이 20cm정도 길다. 깃은 달지 않으며 뒷고대만 박고 흰색의 동정을 단다. 다홍색 바탕에 장수와 길복의 뜻을 지닌 십장생문, 연꽃, 모란 등을 옷 전체에 수놓고, 등에는 이성지합(二姓之合), 만복지원(萬福之源) 등의 글자를, 앞의 양어깨에는 동자(童子)를 수놓는다. 남색으로 안을 넣으며 소매 끝에는 황색, 홍색, 남색의 색동을 달고, 끝에는 수놓은 백색 한삼을 달고, 소매 진동 아래는 튼다.

그러나 혼례에서 신부가 입는 활옷은 금박을 찍은 남색과 홍색의 스란치마를 겹쳐 입고 삼희장저고리를 입은 위에 활옷을 입고 대대(大帶)인 홍색 단(緞)으로 만든 봉대(鳳帶)를 앞가슴 위에 띠어 뒤에서 매어 늘인다. 머리는 또야머리에 용잠(龍簪)을 꽂고 도투락땡기와 앞줄땡기를 드리고 칠보화관(七寶花冠)을 쓴다(김영숙, 1998). 충청도 지역에서 활옷은 부유한 집안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대전 옛터박물관(사진7, 좌측)과 진천 김운석 소장의 활옷(사진7, 우측)은 형태와 크기, 자수가 똑같았는데, 일반적인 활옷과 달리 길의 앞뒤 길이가 같았다. 이도 원삼과 마찬가지로 원형이 변화돼 가는 과정의 산물로 보여진다. 또한 소매의 색동 순서는 같았으나 안감은 각

각 초록색과 보라색으로 달랐다. 이는 유통되는 기본 옷본과 자수본이 있거나 전문 바느질집의 침모에 의해 만들어져 판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원삼(圓衫)

원삼은 조선 후기에 가장 일반적인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다. 원삼은 여자의 대례복으로 신분에 따라 그 색과 문양을 달랐다. 황후는 황색 곁에 소매가 넓으며 끝에는 다홍색과 남색의 색동과 흰색 한삼을 달고 용문을 직금 또는 부금한 황원삼을 입었으며, 왕비는 다홍색 곁에 노랑색과 다홍색 또는 남색의 끝동에 한삼을 달고 봉문을 금박한 홍원삼을 입었으며, 빈궁은 자적색 곁에 노랑색과 다홍색 끝동과 한삼을 달고 역시 봉문을 금박한 자적원삼을 입었다. 공주나 옹주는 연두색 곁에 다홍색과 노랑색 끝동과 한삼을 달고 화문을 금박한 녹원삼을 입었다. 그리고 내명부, 외명부 및 일반 부녀자의 상복(上服)도 화문이 있는 녹원삼이었는데, 서민층의 신부 혼례복으로도 허용되었다(사진8, 좌측). 원삼에는 모두 대대(大帶) 홍단대(紅緞帶)를 띠게 되어 있는데, 7척 남짓한 것으로 앞에서 뒤로 돌려 매고 나머지는 아래로 드리운다. 원삼에 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사려편람, 가례도감의궤, 상방정례, 국혼정례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려편람에는 ‘원삼이란 가례의 대수(大袖)이고, 일반이 입은 원삼은 깃이 겹쳐지지 않고 마주보게 되며 뒤가 길고 앞이 짧다. 또 소매단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여러 층 옷감을 이어댄다. 전후가 길고 짧음이 없이 치마길이와 같게 하므로 소매달린 배자와 같다’고 되어 있다(유희경, 1999). 혼례복은 재질이 계절과 관계없다. 그리고 혼례복 밑에는 녹의홍상이나 황의홍상을 입고 그 속에는 모시 속적삼이나 배속곳을 입었다.

그러나 혼례에서 신부가 입는 원삼은 음성향토자료전시관의 소장품의 경우(사진8, 우측), 옷색이 바래서 선명하지 않으나 길 앞과 뒤는 연두색이고 앞이 짧고 뒤가 길었다. 소매에는 6줄의 색동과 흰색 한삼이 달려 있다. 문의면대청댐자연학습관의 원삼도 음성 것과 같았으나 색동색만 달랐다. 온양박물관의 원삼(사진8, 하)은 길이가 하늘색이며 다른 것은 같았다. 청원군 한얼고미술 소장의 원삼(사진8, 맨 밑)은 녹원삼이고 길 앞과 뒤의 길이가 같았는데 이는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형이 간소화 내지는 변화돼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사진은 1920년대 민간 혼례용 원삼(사진8, 좌측)으로, 길과 소매 부분은 표주박문과 자수문이 있는 녹색생고사, 안감은 황갈

색 면으로 지었다. 색동은 자주, 녹, 홍, 황, 남색, 한삼은 소색 명주로 만들고 동정에는 종이심지를 넣었다. 용문 갑사로 만든 홍색 대를 사용하였다(경운, 2010).

(5) 꽃신

꽃신은 꽃 모양이나 여러 가지 빛깔로 곱게 꾸민 여자들이 신는 마른신이다(사진9, 좌우). 베를 여러 겹 붙인 위에 청홍색의 무늬 있는 비단을 두르고 다시 바탕색과 반대되는 색실로 매화, 대나무, 나비 등을 수놓아 아름답게 꾸몄다(허동화, 1997). 신은 창, 안창, 아랫번, 윗번, 신울, 외피, 내피, 근피, 도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석주선, 2004). 꽃신 외에 당혜와 운혜를 신었다. 당혜(唐鞋)는 상류층 부녀자나 양반집규수가 혼수 장만할 때 준비하는 귀한 신으로, 코와 뒤꿈치에 당초문을 수놓았다. 지금의 고무신과 비슷한 모양에 안에는 폭신한 감을 대고 걸은 비단으로 가죽을 싸서 만들었으며 오른쪽 왼쪽 구별이 없다. 그리고 운혜(雲鞋)는 앞코에 구름모양의 무늬가 있다(사진9, 하).

(6) 비녀

비녀는 부인들이 쪽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식품으로 한자로는 잠(簪)이라 한다. 이 비녀는 머리 부분은 낭자(쪽)에서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기능과 장식적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비녀의 모양에 따라 용잠(龍簪), 봉잠(鳳簪),(사진10) 원앙잠(鴛鴦簪) 등이 있으며 그 재료는 산호, 비취, 옥, 금, 은, 뿔, 대나무, 백통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혼례에서 신부가 꽂는 비녀는 주로 용잠이 사용되나 사회적 신분과 빈부에 따라 봉잠(鳳簪), 원앙잠(鴛鴦簪)이 사용되기도 한다.

(7) 땡기(唐只)

땡기는 본래 여자들의 머리끝에 드리는 장식용 형 겹이나 끈을 뜻하는데 신라 때부터 사용된 땡기는 조선시대에 크게 발달하여 쪽땡기 ·큰땡기 ·앞땡기 ·도투락땡기 ·말뚝땡기 ·제비부리땡기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혼례에서 신부가 사용하는 땡기는 앞땡기와 도투락땡기이다.

앞땡기는 쪽머리에 낀 큰비녀의 좌우 끝에 말아 앞으로 늘어뜨리는 땡기인데(사진11,좌측) 감이나 색

은 물론 무늬도 도투락땡기와 같은 계통으로 한다.

도투락땡기(사진11,우측)는 일명 큰땡기, 대땡기라고 하며 머리 뒤에 고정하여 늘어뜨렸는데 그 길이는 치마보다 약간 짧다. 그 모양은 가로 10cm내외 세로 210cm내외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심에서 뽀족하게 접었고, 벌어지는 곳을 매미, 나비 등으로 고정하였다. 그 색은 검은색 또는 감자주색이며 그 위에 여러 문양의 금박을 찍고 구슬, 옥, 금패 등으로 장식한 것과 색실로 장식한 것 등이 있다(권오창, 1997).

(8) 대대(大帶)

대대는 여자의 원삼·활옷에 띠는 넓은 띠로, 붉은 공단에 심을 넣어 만들어졌으며 중앙에서 50cm 떨어진 곳에 속 끈을 단다(사진12). 그리고 봉황무늬를 금박한다. 이 때 같은 길이 전체에 금박을 찍으나 안쪽은 아래에서 80cm정도만 찍는다. 활옷과 원삼에 허리에 매었다.

4. 사진자료

4.1. 신랑복식 사진자료

(1) 사모



[사진1] 사모, 아산의 이득선 소장,
출처: 조선시대의 관모, 14쪽(1988).
음성향토자료전시관(우)

(2) 관복



[사진2] 관복, 단령.
출처: 아름다운 시작, 86쪽(2010), 출처(우):
음성향토자료전시관

(3) 목화



[사진3] 목화,

출처: 음성 향토자료 전시관,

출처(우): 화·혜·이, 77쪽(2004)



[사진4] 각대,

출처: 음성향토자료전시관

4. 2 신부복식의 사진자료

(1) 화관



[사진5] 화관, 아산 이선득 소장

출처: 조선시대의 관모, 50쪽(1988)

(2) 족두리



[사진6] 족두리, 아산 이득선 소장,

출처: 조선시대의 관모, 51쪽(1988)

출처(우): 음성향토 민속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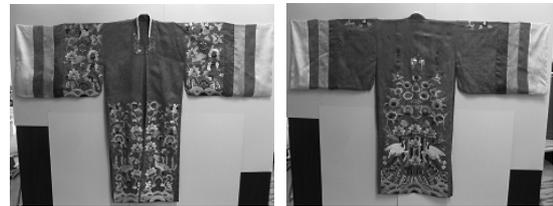
(2) 활옷과 원삼

활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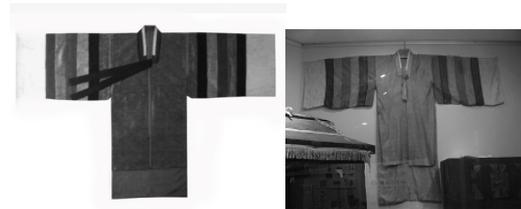


[사진7] 활옷,

출처: 대전 옛터박물관



출처: 진천 김운석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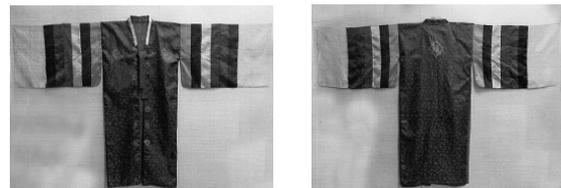
민간원삼,

출처: 아름다운 시작, 83쪽,(2010)

출처(우): 음성 향토자료 전시관



출처: 온양박물관 소장



출처: 청원 한얼고미술 소장,

(3) 꽃신



[사진9] 꽃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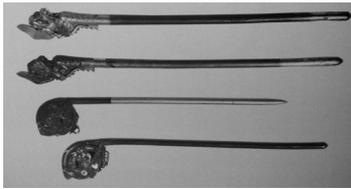
출처: 석주선기념박물관

출처(우): 우리규방문화, 76쪽(1997)



출처: 윤혜, 화·혜·이, 51쪽(2004)

(6) 비녀



[사진10] 비녀,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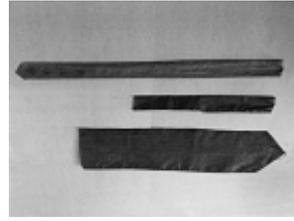
(7) 땡기



[사진11] 앞땡기, 출처: 아름다운 시각, 95쪽(2010)

도투락땡기(우),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50쪽

(8) 대대



[사진12] 땡기와 대대,

출처: 진천 김운석 소장

5. 마무리

지금까지 혼례의 역사적 변천과 혼례의 의식절차, 우리 민족의 전통 혼례복과 충청지역에서 사용된 혼례복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랑복식은 의복과 장신구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신부복식도 의복과 장신구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마지막에 사진을 제시하였다.

충청지방의 혼례복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용과 일가·친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문에서 마련해 두고 사용하는 집안공용 혼례복이 있었다.

혼례복의 특징은 첫째, 개개인의 인체치수에 맞춘 맞춤옷이 아닌 기성복이며, 일반 옷보다 크고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따라 크거나 적어도 그냥 입었다. 둘째, 신랑 옷은 서민의 경우, 빈부에 관계없이 입었고, 신부의 경우는 빈부에 따라 옷과 관, 비녀 등이 달랐다.

연구과정에서 혼례복 관련 문헌에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혼례복이란 혼례 시 입는 겉옷을 일컬으며, 계절과 무관하고, 여자에게 있어 혼례복은 초혼복을 말하는 것이다.

혼례복의 그 형태적 유형은 크게 신랑복식과 신부복식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의복과 장신구로 나눌 수 있다. 신랑복식은 의복으로는 사모 관복 목화가 있고 장신구로는 각대가 있다. 신부복식은 의복으로는 화관, 족두리, 활옷, 원삼, 꽃신이 있고 장신구로 비녀 땡기 대대가 있다. 충청지방 혼례복식의 형태는 왕실 혼례복에 준하여 유사하거나 덜 화려하였다. 이는 혼례 자체가 규범이고 혼례복은 국정혼례복으로서 전국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충청지방은 서울 경기의 영향권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특이점이 있다면, 혼례복 속에 입는 모시 적삼이 '시원하게 시집살이가 잘 풀리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일률적이나, 이는

혼례 일의 긴장과 낯선 환경에서 예상되는 체온 상승에 따른 대처방안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연구의 한계점은 충청지방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보다 많은 실물을 찾지 못한 점이며, 앞으로, 사모의 날개(뿔)가 남성의 고환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한 고증 연구와 남자의 경우 재혼 시 혼례에서, 뿔이 한개만 꽂힌 사모에, 장모가 마저 꽂아 채워준다고 하는 데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경운박물관.(2010). '아름다운 시작', 서울: 경기여고경인 박물관. 83.
- 계몽문화재단.(1988). '조선시대의 관모' 서울: 온양민속박물관. 50.
- 고복남.(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조각.
- 김영숙.(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340.
- 김정자.(2000). 20세기중엽 충청지역의 혼례복과 혼례풍속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학', 50, 한국복식학회.
- 김중혁.(2002). '조선의 관혼상제', 서울: 중심. 23.
- 동아출판사.(199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 석주선기념박물관.(2004). '화·혜·이',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온양민속박물관.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 이순홍.(1992). '한국 전통 혼인교', 서울: 학연문화사.
- 장병인.(1997). '조선전기 혼인제도와 성차별', 서울: 일지사.
- 조효순.(1996). '복식', 서울: 대원사.
- 최남선.(1948). '조선상식<풍속편>' . 서울: 동명사.
- 허동화.(1998). '우리규방문화' 서울: 현암사.